

잊지못할 추억

조 이 남

(금융결제원 상무이사)

1968년 10월 1일 서울 명동 1가 4번지,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건물자리에 금융기관의 공동센터인 금융기관전자계산본부가 설립되고 1969년 5월 UNIVAC 9400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나는 UNIVAC 9400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사에서 파견나온 SE의 조수자격으로 일하는 풋내기 보조 프로그래머였다.

그때는 컴퓨터라고 하면 한치의 에러도 없는 절대적인 기계요, 미국 본사에서 보내온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믿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때 컴퓨터는 메모리가 32KBYTE의 프레이티드와이어라는 기억소자를 가진 첨단장비였고, 자기테이프는 손으로 몇회전을 돌려서 테이프를 감아 놓은 후 버튼을 눌러 진공관흡입방식의 보조터널에 흡입시킨후 헤드에 셋트되는 복잡

한 과정을 겪는 장비였고, 입력자료로는 80칼럼 펀치카드에 소스프로그램을 천공하여 카드리더에 읽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카드의 72~80칼럼까지는 순서번호를 쳐 넣어 카드가 마루바닥에 흩어져도 순서번호를 보고 차례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디스크 1팩의 용량은 725만BYTE로 운영체제가 상당한 크기의 용량을 차지하므로 응용프로그램을 디스크에 보관할 생각은 엄두에 두지도 못했다.

처음 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체제를 설치한 후 바이트머신의 어셈블리 프로그램은 잘 돌아갔고 프로그래머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엔지니어라는 기분을.

그런데 COBOL로 작성한 프로그램이 컴파일은 잘되었는데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고 계속하여 리젝트되고 있었다. 분명히 32KB메모리에서 COBOL이 작동하도록 메뉴얼에 기록되어 있었다. 며칠동안 COBOL로 작성한 프로그램에 잘못이 있는가를 검증해보아도 잘못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컴퓨터 공급회사의 본사에 텔렉스로 COBOL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질의를 보냈다. 며칠이 지난후 자기테이프 한 개와 몇장의 시스템 설명서가 첨부되

어 왔는데, 내용인즉 메모리를 32KB 더 추가하여 사용하고, 보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사용하라는 지시 내용이였다.

나중에 알고보니 본사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부서와 메뉴얼을 만드는 부서가 서로 달라 새로 추가해야할 내용이 누락된채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고 메모리도 32KB로는 작동이 안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이였다.

그때 조수신분으로 있는 나로서는 미국 컴퓨터 회사내의 부서간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으로 일어난 실수라는 것을 알고 웃을 수 없는 난처한 고비를 넘기고 있었다.

컴퓨터실 환경으로는 21℃, 50%의 상대습도를 유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컴퓨터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에어컨 장치는 국내에서 제작한 사무실 냉방용으로 수냉식 쿨링타워에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만 에어컨이 작동되는 기계였는데, 옥내 급수탱크에 수도물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어 공급할 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불빛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 컴퓨터실의 온도계는 30℃를 넘기고 있었고 컴퓨터의 메인판넬에는 메모리 체크라는 램프불이 켜지고 컴퓨터가 작동을 중단하고 말았다. 실내온도가 컴퓨터를 멈추게한 주범이었고, 그 원인은 수도물 중단에 있었다.

그당시 컴퓨터를 하루저녁 쉬게 하면 몇 백만원 이상의 손실이 있다는 것을 컴퓨터를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에어컨 때문에 비싼 컴퓨터가 멈추게 되다니…… ”

생각다 못해 드라이아이스를 구입하여 컴퓨터실에 넣어두면 온도가 내려갈 것이라는 생각에 서울시내 곳곳을 누비며 드라이아이스 공장을 찾아 헤메었다. 북창동 한 구석을 가다보니 바위덩어리만한 얼음이 눈에 띠었다.

“ 아! 저거다 ! ”

“ 저 놈을 컴퓨터실에 넣어 놓으면 온도가 내려가겠지…”

커다란 얼음 두 덩어리를 구입하여 빈그릇위에 올려놓고 선풍기로 얼음을 향하여 열심히 바람을 불어댔다. 그러나 실내온도는 내려갈 줄을 몰랐다.

얼음 두 덩어리로써 기계에서 발산하는 열을 감당할 수 없었다.

“ 행복이다. ”

하루저녁을 얼음덩어리와 함께 컴퓨터 가동도 못한채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그때의 시간이 왜 그리도 지루했던지……

30년 전 그 시절의 웃지 못할 기억이 새로와진다.